

회계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,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.

- 매일경제 5월 8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-

1. 기사내용

- 매일경제는 5.8일 「기업 불멘소리에 유예·예외 남발... “회계개혁 수포로 돌아갈 판”」 제하 기사에서 “금융당국이 내부적으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1년·3년·5년 단위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”라고 하면서, 회계개혁이 수포로 돌아갈 판 “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- 금융위원회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포함한 현 회계제도의 개선 필요성, 개선 여부,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미정입니다.
- 정부안은 그간 TF에서 논의된 내용, 회계학회 공청회(2.10)에서 제기된 의견, 회계학회의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결정될 것인 만큼 보도에 신중해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자본시장국 기업회계팀	책임자	팀 장	송병관 (02-2100-2690)
		담당자	사무관	이상원 (02-2100-2693)